

광주 25년만에 남자 양궁 국가대표 배출



이승운

광주시양궁협회 이승운 5위
광주여대 안산 6위로 통과
내달 친선선수촌 입촌 훈련 합류
최민선·최미선도 2차 관문 넘어
내년 3월 남녀 각 8명 최종 선발

광주를 대표하는 안산(광주여대), 최민선(광주시청), 이승운(광주시양궁협회)이 2021도쿄올림픽 레이스 2차 관문을 통과했다.

2020년도 국가대표인 안산은 29일 경북 예천 진호양궁장에서 열린 2021년도 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 여자 리커브 경기에서 배점 합계 73점으로 6위를 차지했다.

태극마크 탈환에 나선 최민선은 15위(55점)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순천시청)은 배점 합계 43점으로 19위에 자리했다.

남자부에서는 올해 광주에 등지를 튼 이승운이 '소속팀 창단 연기'라는 악재를 뚫고, 배점 합계 73점으로 5위에 오르며 리우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도전 기회를 이어갔다.

2012 런던, 2016 리우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기회를 잡은 기보배(광주시청)는 27위로 탈락했고, 이날 3회전까지 18위에 자리했던 김민서(광주여대)는 마지막 4회전에서 흔들리며 21위를 기록 아쉬움을 남겼다.

2차 관문을 통과한 남녀 각 20명 중 상위 8위에



29일 경북 예천군 예천진호체육양궁장에서 열린 2021년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신중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함된 안산과 이승운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다음달 2일 친선선수촌에 입촌, 국가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

광주에서 남자 양궁 국가대표가 배출된 것은 지

난 1995년 장용호 이후 25년 만이다. 한편, 대한양궁협회는 2차 관문을 통과한 남녀 각 2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치러질 예정인 3차 선발전에서 남녀 각 8명의 선수를 2021년도 국가

대표로 선발한다. 선발된 국가대표들은 마지막 평가전을 치러 상위 남녀 3명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갖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코비치 진땀승

ATP 투어 에르스테뱅크 오픈...네 차례 세트 포인트 위기 넘기고 8강행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세트 포인트 위기에 네 차례 몰렸지만 2-0 승리를 거두고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에르스테뱅크 오픈(총상금 140만9510유로) 단식 8강에 진출했다.

조코비치는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보르나 초리치(24위·크로아티아)를 2-0(7-6(13-11) 6-3)으로 제압했다.

조코비치는 1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5-6, 6-7, 7-8, 9-10 등 네 차례나 세트 포인트에 몰렸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13-11로 첫 세트를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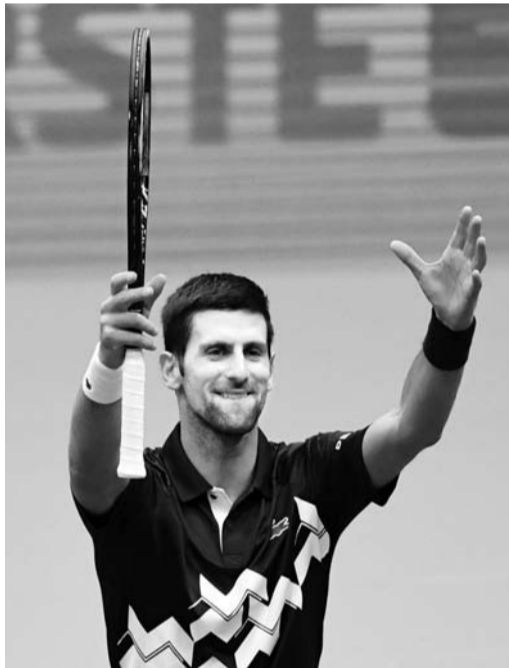
지난해 월블던부터 조코비치는 타이브레이크에서 21승 2패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조코비치의 ATP 투어 이상급 대회의 타이브레

이크 통산 전적은 260승 140패로 승률이 65%에 이른다. 이는 현역 선수 중에서 460승 244패로 65.3%의 승률을 기록 중인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 다음가는 높은 승률이다.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올해 남은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한다.

또 현재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11월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막하는 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성적만으로도 연말 세계 1위를 확정할 수 있다.

조코비치는 후베르트 후르카치(31위·폴란드)-로렌조 소네고(42위·이탈리아) 경기 승자와 준준결승을 치른다.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가 29일 보르나 초리치를 2-0으로 제압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민간체육시설서 8만원 쓰면 3만원 환급

문체부·체육공단, 다음달 2일부터 선착순 40만명에 소비할인권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1월 2일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8만원을 쓰면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할인권을 배포한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소비할인권은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된다.

7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홈페이지를 방문해 행사에 참여하면 소비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할인권을 받은 참여자 중 11월 2~30일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누

적 이용료 8만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 40만명에 게 12월 15일 3만 원을 환급해준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6만3000여 개가 등록돼 있다.

문체부와 공단은 행사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방역 지침 준수 독려 영상을 통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영세 시설에는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소비할인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668-0918)와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 보스턴마라톤

4월에서 가을로 연기

보스턴마라톤 조직위원회가 2021년 대회 개최일을 4월 20일(한국시간)에서 가을로 연기했다.

내년 봄까지는 코로나19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P통신은 29일 "보스턴마라톤 조직위가 예정했던 내년 4월 19일에 대회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아직 날은 정하지 않았고, 가을에 대회를 열 준비를 한다"라고 전했다.

1897년에 시작한 보스턴마라톤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를 취소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조직위는 5월에 "올해는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35세 유리 회사 직원 PGA 데뷔 꿈 이룬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골프연습...버뮤다챔피언십 예선 1위

유리 회사에 다니는 35세 직원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 대회 출전의 꿈을 이뤘다.

29일(한국시간) 버뮤다 사우샘프턴의 포트 로열 골프 코스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버뮤다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에 출전하는 카미코 스미스(35·버뮤다)는 지역 유리회사인 커머셜 글라스 앤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다.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그의 사연은 새벽 4시부터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한 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직원 업무를 보고 이후 저녁 시간을 활용해 골프 연습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그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투어에 나가게 된 것은 이달 초에 열린 예선 대회에서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를 쳐 무려 5타 차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버뮤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스미스는 특히 대회장인 포트 로열 골프 코스 4번 홀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

스미스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담장 하나만 남으면 바로 4번 홀이 나왔다"고 회상하며 "예선 대회에 나갈 때 회사로부터 2주 휴가를 받았는데, 투어 대회 본선까지 나가게 되면서 또 2주 휴가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클럽 보조 프로로 일하거나 레슨, 미니투어 출전 등으로 골프와 인연을 이어가던 그는 "회사에서는 문이나 창문, 강풍 대피소 등을 설치하는 일을 한다"며 "골프와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은 좀 불안정한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나의 열정을 이어가도록 도와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다소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생활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프로 생활을 했다는 그가 유리 회사에 취직한 것은 불과 4개월 전이라고 한다.

스미스는 5살 때 집 근처인 4번 홀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꼈으며 9살 때 골프장 직원의 도움으로 클럽을 잡아보기 하고, 연습 레인지에 가보기도 하는 등 골프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13년 버뮤다 벨몬트 힐스 골프클럽 소속 프로로 일했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등의 골프장에서도 근무한 경력 이었다.

다시 올해 2월 버뮤다로 돌아와 터틀 힐 골프 클럽에서 열린 파3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버뮤다에 머물면서 직장을 구하고, PGA 투어 예선 대회에도 도전했다.

이번 대회 1라운드를 벤 테일러(잉글랜드), 세스 리브스(미국)와 함께 치르게 된 스미스는 2021년에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APGA라는 미니 투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 다.

스미스는 "어릴 때부터 자란 홈 코스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가게 돼 기쁘다"며 "버뮤다의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고 싶다"고 의욕을 내보였다.

북대서양에 있는 섬들로 이뤄진 영국령 버뮤다는 면적 53.2km로 서울 서초구(47km)보다 조금 큰 정도다. 인구는 7만 명이 조금 넘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 2관 |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 3관 | 태슬라, 담보, 위플래쉬 마이 리틀 포니: 레인보우 로드 트립 |
| 4관 |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 5관 | 담보 |
| 6관 |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
| 9관 | 소리도 없이 |
| 7관 씨네커틀 | 다만 앞에서 구하소서 파이널컷 |
| 8관 씨네커틀 | 미스터트롯: 더 무비, 위플래쉬 소리도 없이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상자의 길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안집시'상자의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창문부터 100세 노인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창문부터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